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광주	062-453-4012
남동공단	070-4756-0119	전남서남	061-462-7177
경기	031-251-7095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안산/시흥	031-491-7097	포항	064-278-1339
서울	02-2636-2148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창원공단	0899-2090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부산/양산	051-637-7433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 해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6년 5월호

- 2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 6면 이주칼럼, 노동안전칼럼
- 3면 현장에서 온 소식
- 7면 노동자 알권리
- 4면 <단결툰> 인천공항 노동자들 이야기
- 8면 노동자 건강센터 안내
- 5면 성수공단 문화제 · 달성공단 야간문화제 소개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4.13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약을 내걸 정도로 최저임금인상 논쟁은 화제였다.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4월1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안”을 내걸고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주40시간 기준 월 환산 126만원)이다. 가족생계는 고사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이것이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 돼버렸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법에 안 걸리므로 딱 그만큼만 주고 있다.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렸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권고하고 그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한국노동 5명, 민주노총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은 ‘올리자’, 사용자위원은 ‘기업망한다’로 입장이 나뉘어 공익위원 9명의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이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려면 사회적 여론조성과 노동조합으로 뭉쳐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거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임금을 시장에 맡기면 자본가들은 임금을 덜 주려는 임금저하 경쟁을 벌여 노동자 삶이 피폐해진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훼손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가 개입해 최소임금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아 최저임금제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돼야한다. 나아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의 액수가 돼야한다.



# 지금, 1만원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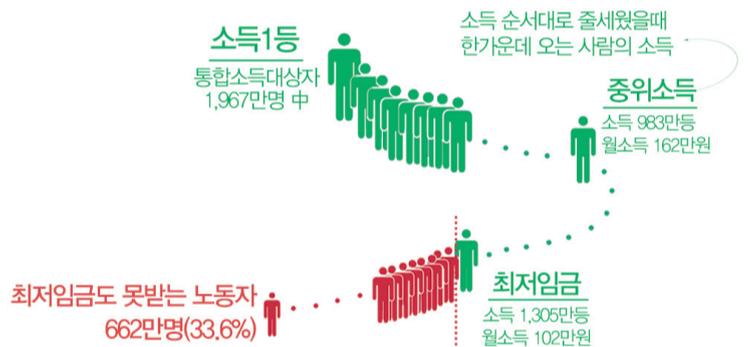
## 서민은 빚더미, 재벌은 돈잔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약탈, 골목상권 싹쓸이... 재벌이 사내유보금 1200조 쌓은 동안 서민 가계빚은 1207조로 사상최대! 노동자 생계유지와 경제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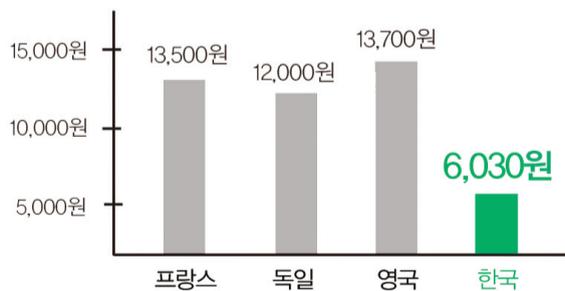
## 소득양극화 해결의 최선책!

노동자 3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약 600만명  
최저임금이 올라야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요!



##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

뉴질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1만원이 넘고 미국도 15달러로 인상하는 논의가 한창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증가!



## 영세상인과 함께 사는 길

희망퇴직 권고사직으로 밀려나 창업을 하지만  
신규창업 100명 중 85명이 3년안에 폐업..  
반듯한 일자리가 있다면 창업대신 일자리로!



###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우리의 요구]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비용 인하
- ➔ 카드수수료 인하
- ➔ 상가 월 임대료 제한
- ➔ 권리금 보장

내 하루를 바꾸는 **행복한 1만원**  
200자 백일장  
www.up10000.kr  
참가기간 5월 31일까지  
50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쉬운 해고 안돼요



재벌에게 세금을



UP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 내쫓기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 5월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의원 선거 후 정부가 ‘구조조정’이란 말을 쏟아내고 있는 때라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 경영부실 책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3대 대형조선소가 2015년 8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조선소가 어려워지자 기술력 없이 해양플랜트 제작에 뛰어들어 엄청난 적자의 원인이다. 적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있다.

정몽준이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단 5년만 적자였고 항상 흑자였다. 지

금까지 영업이익의 누적액이 약 17조 원,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은 약 10조 원이다. 누적 당기순이익 10조원 중에 주주들이 배당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가져갔다. 회사가 큰 이익을 낼 때는 엄청난 돈을 챙겨갔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니 노동자들만 내쫓고 있다.

## 다단계 착취구조 ‘물량팀’

작년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두 조선소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올해도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쫓겨난다고 한다. 그 중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조선소에는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청고용이 큰 문제다. 물량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해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선소 안에 수백 개의 사내하청업체가 있는데 하청업체도 노동자

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또 물량팀과 다단계 하청계약을 맺는다. 물량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원청인 조선소는 물론이고 사내하청업체 사장도 책임지지 않는다.

## STX고성조선해양 삼원 노동자들의 투쟁

경남 고성에 있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삼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15명이 지난 4월 6일부터 27일까지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투쟁을 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이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싸웠다. 20여 일의 농성투쟁 결과 하청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일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여도, 업체가 폐업해도 각자 알아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선소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임금체불과 업체 폐업이 줄을 잇자 하청노동자들의 울분과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에 실업 대책을 요구하고 물량팀 고용 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하청노동자 자신이 직접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허공 속 외침에 불과하다. 하청노동자들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조합’을 만들려 한다. 하청노동자들 역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김춘택 /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회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다

노동자 4명이 부천에서 메탄올로 인해 시력을 잃은 사고 이후, 노동부는 메탄올을 쓰는 회사에 점검을 나갔다. 노동부가 점검 나간 업체 중 ‘공장 이전을 이유로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회사도 있었다.

그 회사는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에탄올(소독용 알콜)’을 쓰고 있다며 에탄올 구매 장부를 보여주고 노동부 공무원들을 돌려보냈다. 며칠 후 그 회사에서 일하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회사는 노동자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사실 그 회사는 노동부 점검이 있

다는 사실을 알고 메탄올을 옥상위로 숨기고 메탄올을 구매한 업체에 연락해 에탄올 구매 영수증을 만들었다. 노동부가 돌아가고 며칠 후 그 공장에서 메탄올을 취급한 파견노동자가 실명했다. 회사는 메탄올이 실명을 유발하고 쓰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괜찮겠지’하며 메탄올을 썼다. 회사에게 노동자의 ‘눈의 가치’보다 메탄올의 가치가 더 컸던 것이다.

## 메탄올 쓰는 노동자는 제보주세요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공단에 나가 메탄올 쓰는 사업장은 제보를 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선전전도 진행했다. 제보가 없

었다. 파견노동자들은 자신이 쓰는 화학물질이 뭔지도 몰랐다. 메탄올로 인한 실명 피해 노동자 5명 모두 파견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법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자

1) 내가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회사는 물질의 성분과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회사에 요구하자. 회사에 요구하기 어렵다면 화학물질이 담긴 원통에 붙은 판매업체에 전화해 요구하자. 판매업체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회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물질에 많이 노

출되는지 측정해야한다. 1년에 2번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고 ‘측정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 줘야한다. 측정하는지 안하는 지 꼭 확인하자.

3) 얼마나 노출되는지 1년에 단 2번 측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병 여부를 알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직업병에 한해 특수하게 하는 진단이라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며 이것도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위 세 가지를 확인하고 뭔가 의심스럽다면 이 신문 맨 앞장 왼쪽 위에 있는 ‘권리찾기 사업단’에 제보하라.

장안석 / 인천권리찾기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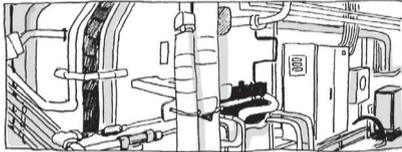
# TV에서 노조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러나 했어요

월간지 오늘보다 편집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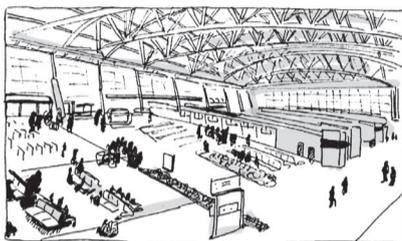


인천공항에서 설비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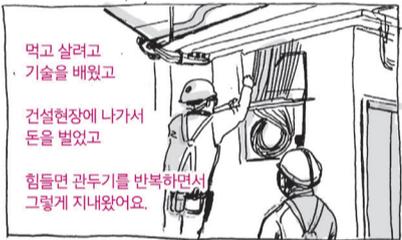
어릴 가나 전기, 가스, CCTV 같은 설비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평범한 학교를 나왔고 딱히 꿈이나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먹고 싶려고 기술을 배웠고

건설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었고

힘들면 관두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 인천공항에서 일을 시작한 게 12년 전, 이십 대 중반이었어요.

돈은 적었지만



밥값 교통비 빼니 남는게 없네

어린 마음에 실내에서 일하는 것도 안전모 안 쓰는 것도 또래가 많은 것도 좋았어요.

나 월급 150으로 올랐어!



어디 가서 자랑이라고 말하지 마

언젠가 월급이 오르게 신나서 여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전 그런 대답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내 일이 어디 가서 멋있이 얘기할만한 일이 아닌가 처음 생각했죠.



어릴 땐 TV에서 노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나 생각했어요.

어릴 땐 TV에서 노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나 생각했어요.



어릴 땐 TV에서 노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나 생각했어요.



내가 노조 할 거라고 상상 못했는데

친한 동료 몇몇이 노조를 해서 어쩌다보니 가입하게 됐어요.

막상 해보니,



조장 형님이 추진력 있고 정말 좋았어요. 제 인생의 멘토가 됐죠.



그 형님 따라 집회에도 처음으로 가보게 됐어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루종일 나와줄 있지?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조 활동을 하다보니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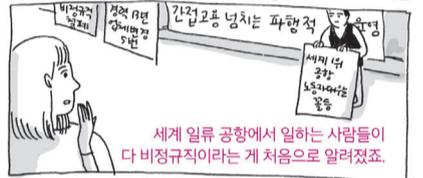


동네 번쩍 서에 번쩍 열심히 하다 보니

2013년엔 부지회장을 하게 됐어요.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이 다 모여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때였어요.



세계 일류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처음으로 알려졌죠.

회사와의 교섭은 결렬됐고 결국 파업을 시작했어요.



'숙제인' 인천공항은 37만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높여라! 인천공항공공서비스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돌입 기자회견



우리 설비직이 뿐 아니라 수백 명의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참가했어요.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요.



업체마다 계약기간 시점도 다르고 단협을 한 번에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다음 싸움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동료들에게 폐가 되면 어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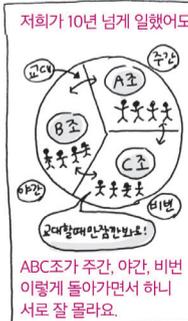
하지만 임원인 제가 흔들리면 안되니까

열심히 싸웠어요.



공항 안에서 집회도 하고 나중엔 농성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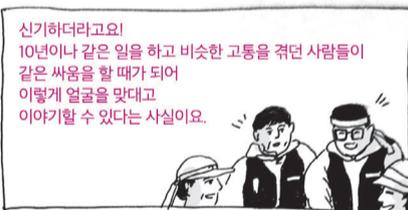
기억에 남는건,



저희가 10년 넘게 일해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파업할 때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대응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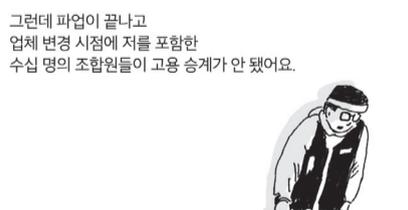


신기하더라고요! 10년이나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 같은 싸움을 할 때가 되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쳐 있었으니까 서로 믿고 싸웠던 거 같아요.



그런데 파업이 끝나고 업체 변경 시점에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고용 승계가 안 됐어요.

나중엔 저 한 명만 남았어요. 회사가 끝까지 저는 안 되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그대로 나갈 순 없잖아요 억울해서라도 안 되죠!



결국 저까지 고용승계가 되긴 했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지쳤기보다 겁을 먹었을까요?



회사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취급도 안 해주니 지회장을 한다는 게 겁도 났어요.



잠 모를 땐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같이 움직여줬어요.

점점 힘이 났죠.



아직도 해결할 게 많아요.

산재처리도 안 되고요.

회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것만 지키고 싶은 욕심보다 서로 손을 내밀고 함께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람이니까 생권전행처

국정교과서 반대!

노동개악 막아내자

세월호 특별법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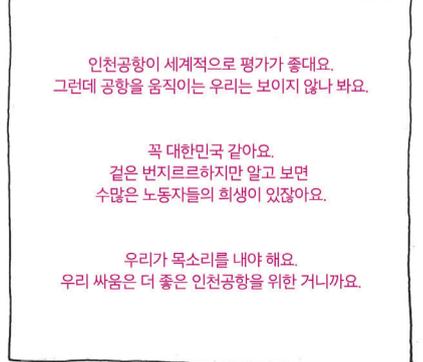
비정규직

사람들은 빨갱이, 귀족노조라며 정치나 세월호 문제는 왜 신경 쓰냐 그러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근데 이젠 알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얘길 하는 건 더 크고 더 깊이 숨어있는 걸 바꿔야 하기 때문이란 걸요.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평가가 좋대요. 그런데 공항을 움직이는 우리는 보이지 않나 봐요.

꼭 대한민국 같아요. 같은 번지르르하지만 알고 보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 싸움은 더 좋은 인천공항을 위한 거니까요.

# 뜨락 공연을 소개합니다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있는 서울 동쪽에 위치한 성수동 공단지역에서 한 달에 한번, 세 번째 목요일 점심에 '뜨락'이라는 일터문화제가 열립니다. 성수근린공원(구두테마공원)으로 찾아오세요.

2014년 건강한일터 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약칭:성사단)에 함께하는 지역의 노동, 시민, 문화 단체들이 노동과 일터를 주제로 문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공단 내 조그마한 쉼터, 휴게공간, 놀이터같은 공간을 이용해 지역의 노동자, 시민들에 한 발짝 다가서서 부담없이 문화공연을 접하게 하자는 기획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큰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작은 놀이터나 작은 쉼터가 만들어집니다. 작년엔 이런 공간을 섭외해 매달 순회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곳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뜨락 문화제에 오면 문화가 있고 노동상담이 있고 건강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수지역 노

동자, 시민의 거점으로 꾸며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성동구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성수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이 건강검진, 건강상담부터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국의 많은 공단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전, 거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역지회는 노동, 문화, 건강이 어우러진 일터문화제 '뜨락'으로 성수지역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시간 : 매월 첫번째 수요일 11시30분~13시  
 장소 : SK텔레콤 성수사옥앞  
 : 노동상담, 건강상담 + 선전전  
 주최 : 성사단,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일과건강, 녹색병원  
 시간 : 매월 세 번째 목요일 11시30분~13시  
 장소 : 성수근린공원(구두테마공원)  
 : 일터문화제 '뜨락' + 노동상담, 건강상담 + 선전전  
 주최 : 성사단,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일과건강, 성동구보건소

## 금속노조가 고담 대구시 공단노동자들을 찾아간다고 전해라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올해 공단노동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노동조건을 함께 바꾸 나갈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래서 담당부서도 만들고 담당자도 선정했다. 담당자들은 달성공단에서 벌일 활동에 대해 매일 고민하고 있다.

올해 5월12일에는 달성공단 안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야간문화제를 한판 거하게 벌여볼 생각이다. 무료건강진단 서비스, 무료법률상담, 현장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한다. 지역에 기반한 문화패(풍물, 춤, 노래)의 지원을 받아 공단 안에서 한판 신나게 놀아볼 계획이다.

풍성한 행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할 2016년 지역사업의 본격적인 포문을 여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기대하시라.

달성공단의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 중소기업 공단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6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게 하

달성공단 노동자문화제

### 당신의 삶은 최저인생이 아닙니데이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5시 반 (부대행사: 오후 3시~)  
 달성군 농공농협 남부지점 건너편 농구장(농공읍 복리 833-2)

부대행사	- 무료 터치키피 버스	본행사	- 풍물패 길놀이
	- 풍선 버스		- 노래 공연
	- 무료노동법상담		- 민중기수 공연
	- 무료건강진단		- 노래 자랑(당일 접수)
	- 투쟁사업장 후원주막		- 밴드 공연 등

보다 많은 주민분들의 참여를 위해 당일, 조개보다는 평상복 복장 부탁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는 노동안전보건 활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노동안전 분야는 이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고담 대구시라는 별칭을 제목에 썼다. 대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맹목적인 지지

를 보내는 지역이다. 노동자지만 '노동자 죽이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소중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달성공단이 위치한 달성군은 박근혜가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달성공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기 노동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권리찾기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이다.

공단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무권리 상태에 있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누려야 한다. 노동운동의 토양이 척박한 대구 땅에서 공단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대구지역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위해 2016년 내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 전국 각지에서도 붓물 터지듯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진짜 세상을 만드는 한해를 만들자.

곽영택 금속노조 대구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

# 사업주 위해 산안법 시행령, 규칙 완화 시키는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이 2016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악 계획을 내놨다. 한달 뒤인 4월21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추진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 ▲50인 미만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도입 무력화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3항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의 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뒤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인~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사실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해당업종도 제조업과 임업 등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농업 등은 제외 됐다.

2015년 재해 현황을 보면 90,129명이 재해를 당했고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가 전체 재해 중 29,840명으로 약 33.1%를 차지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휴업 3일에서 휴업 4일 이상, 산재 은폐 적발해도 처벌은?

산업재해보고 대상도 휴업 3일에서 휴업 4일로 완화한다. 보고해야 할 휴업 일수 완화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사

업주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염려한 재해자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나 119기록 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은폐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벌을 하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보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산재 발생 보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산재은폐 방조다. 사업주는 굳이 재해발생 보고를 할 이유가 없고 관청이 먼저 확인하면 발생 보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굳이 나서서 재해 발생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만 산재 발생 건수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 공표하는 제도 역시 기준을 바꾸겠다고 한다. 지금은 연재 산재율이 같

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표 했다면 개악안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아야 산재다발사업장으로 공표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아니면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되기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50인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몇 개 업종은 100인 이상으로 완화시키겠다고 한다. 규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축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사업주는 위험한 일을 아무 조치 없이 노동자에게 시킬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 결국 세월호 사고같은 참사가 벌어졌다. 규제를 해도 점검하지 않아 메탄을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규제완화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의 선물이다.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5회째 맞은 녹산노동자 체육대회

녹산공단은 조선기자재, 자동차 등 금속 사업장이 많은 부산지역 최대 공단이다. 약3만의 노동자 중 10%가 이주노동자이기도 하다. 지난 4월24일 이 공단 한복판 '희망공원'에서 '녹산노동자체육대회'가 열렸다.

필리핀,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오전 시간은 네 개 코트에서 배구, 세팍타크로, 족구, 배드민턴을 동시 진행한다. 가장 격렬한 곳은 배구코트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매년 맞춰입던 유니폼을 입지 않은 탓인지, 네팔팀은 맨날 지각한다고 했는데 올해 제일먼저 경기

준비하고 있던 덕인지 4년째 우승한 캄보디아 배구팀이 올해 네팔노동자들에게 밀렸다.

세팍타크로는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는 대중적



경기다. 배구와 물이 비슷하지만 손 대신 발로 공을 다룬다. 나무줄기를 엮어 만든 작고 가벼운 공을 사용한다. 공중부양에 회전까지 하며 발로 스파이크를 날리는 미얀마 친구들의 몸놀림에 감탄이 나온다.

족구는 역시 한구노동자들이 월등하다. 공이 없으면 우유곽으로도 경기를 벌이는 아저씨노동자들의 족구감각은 녹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늘 족구경기는 조금



시시한 느낌이 든다.

점심식사 후, 음향담당이 바빠진다. 필리핀 출신 공연노동자들이 수준급 노래를 선보인다. 손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공연노동자로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무대 아닌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 섰다.

미얀마노동자 밴드 '그린선데이'가 무대에 섰다. 혼남 보컬이 없다. 긴급 투입한 보컬의 뱃사리가 이어졌지만 미얀마 모던락에 맞춰 친구들의 떼창이 이어졌다.

단체게임이 기획됐지만 흥린 듯 춤추는 이들 때문에 단체게임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질 때, 나무말타기 게임을 위해 거제도 대숲을 뒤져 묵직한 대나무 다섯 개를 공수해 온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결국 순서가 바뀌어 나무말타기, 줄다리기 등 국적을 초월한 공동체 경기로 넘어갔다. 흘러버린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즐겼다.

이주민과 함께

# 알권리로 시작하는 생명과 건강 지키기

(소개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한 반올림은 삼성이라는 한 사업장을 넘어 반도체·전자산업 전반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제품생산과 기업의 이윤에 떠밀려 노동자의 생명은 뒷전이 된 현실 속에, 반올림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의 알 권리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얇은뱅이병’이라는 것이 있다. ‘노말핵산’이라는 물질에 노출되면 걸리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다발성 신경장애’로 하반신이 마비돼 걷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 LCD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8명의 태국 여성노동자들이 이 병에 걸려 유명세를 탔다. 당시 이 노동자들은 노말핵산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부품을 세척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장비 없이 일하다 법적기준치 5배에 초과하는 노말핵산에 노출돼 얇은뱅이 병에 걸린 것이다.

이 사례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악성 직업성 암을 얻은 삼성 전자 직업병 피해자들 (현재까지 반올림 추산, 반도체/LCD공장에서만 223명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메틸 알코올에 노출돼 시력을 잃은 삼성 휴대폰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말핵산과 같은 유기용제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많이 사용한다. 전자산업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은 대개 매우 정밀해 불량을 줄이기 위해 세척과정이 중요하다. 유기용제는 시너, 솔벤트 등 어떤 물질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 유기화학 물질로 휘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주로 숨을 쉬는 동안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

다량의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두통, 구역질, 현기증,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술 취했을

때와 증상과 비슷하다. 유기용제에 오랫동안 노출되다보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감각이상, 마비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다행히 유기용제는 우리 몸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며칠에서 몇 주면 빠져나간다.

‘유기용제 사용 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유기용제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유해물질을 쓰는지 미리 안다면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유독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독마스크를 쓰고,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 못하도록 보호장갑을 끼야 한다. 공기 중 유해가스를 모으도록 집진기를 설치해 일터의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사업주가 비용의 문제를 들어 개선하지 않는 게 문제다.

내가 사용하는 세척제에 어떤 유기용제가 들어있는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한다. 사업주는 이를 알 수 있게 그리고 물질에 노출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적힌 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현장에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배치해야한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이면 특수건강검진도 시행하고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나서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노동자가 먼저 알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해주세요.



## 노동자 여러분의 제보·후원을 기다립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의 진실을 규명 하겠다는 황상기씨의 제보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노동인권활동가, 노무사, 의사, 변호사 등이 국내외 연대, 반도체노동자 건강에 대한 자료수집, 언론홍보와 선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보하세요! 전화 02-3496-5067 팩스 02-6442-5065 이메일 sharps@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남부순환로 2019) 5층 501호 트위터, 페이스북 @sharpsglory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홈페이지 sharps.or.kr 영문 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 경남 노동자 건강센터 안내

노동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20개소에서 운영 중  
입니다.

노동자건강센터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의학적 서비  
스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노동자건강센터』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  
하고 있으며 2012년 5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 이  
니다.

경남센터는 경남지역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  
업장 근로자 및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병 상담 및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 건강관  
리, 뇌심혈관질환예방(금연, 절주 영양, 비만),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근무환경, 심리상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사업주의 법적의  
무사항인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전액무료로 실  
시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우리회사 주치의라는 새로운 개  
념의 사업을 도입하여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우리회사 주치의 소개**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주대상으로 '우리회사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주치의' 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 단위로 찾아가서 의사 건강상담,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상담(금연, 절주, 영양, 비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관리, 작업환경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20개소(2015년 기준) 중 '우리회사주치의'라는 산업보건(주치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소규모사업장의 통합적인 보건관리 전략으로 '사업장 주치의'라는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기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장 노동자  
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센터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남도 내 직업  
군 중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보육교사,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 외 언어적인 문제와 센터 방문이 어  
렵고 건강관리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  
여 경상남도 내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매월 2회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되는 지역으로  
찾아가 무료 이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일과 전 아침 스트레칭, 점심  
시간을 활용한 운동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경남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국 네트워크 현황**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01  
B/C 801호(이동 23호)  
www.suwhc.or.kr

**서울강서근로자건강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983  
(우림동 푸른인비즈니스센터 A동 1008호)  
www.sgwhc.or.kr

**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직로 22  
(부천테크노파크 단지 관리동 301호)  
www.bcwhc.or.kr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9번길 30  
(인촌동합비즈니스센터 4층)  
www.icwhc.or.kr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시흥시 광안대로 247  
(KT시흥지사 3층)  
www.gswhc.or.kr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악영대로 1569번길 12  
디지털융합아이빌딩 1층 C동 205호  
www.gnwhc.or.kr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평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  
www.cnwhc.or.kr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말복빌딩 2층)  
www.jjwhc.or.kr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www.gjwhc.or.kr

**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3층)  
www.jejwhc.or.kr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상남산업단지관리공단 1층)  
www.gdwhc.or.kr

**원주근로자건강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서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층)  
www.wjwhc.or.kr

**대전근로자건강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태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이 105호)  
www.djwhc.or.kr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1층)  
www.gbwhc.or.kr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www.dgwhc.or.kr

**경상근로자건강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2층)  
www.gsswhc.or.kr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로 1138  
(소양메디칼센터 8층)  
www.uswhc.or.kr

**부산근로자건강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부산디지털빌딩 1층 11호)  
www.bswhc.or.kr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산로 90  
(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09호)  
www.knwhc.or.kr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 중앙로 23 YM빌딩 3,4층  
(화정동 330-7)  
www.jnwhc.or.kr

-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암로 50  
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09호
- 운영시간**  
월~금 오전10:00~오후21:00
- 문의사항**  
1661-6497, 055-713-2400

## 바지락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주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원고는 '바지락'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원고 접수  
edit@labor.org  
●무료 구독 신청  
각 지역 상담전화로 신청